

위암 환자에서 F-18 FDG 전신PET의 국소 임파절 전이와 재발 진단에 대한 임상적 의의
원자력병원 핵의학과

김병일*, 양원일, 이재성, 최창운, 임상무, 홍성운

목적: 위암 환자들의 국소 임파절 전이의 진단을 위한 F-18 FDG 전신PET와 복부CT의 검사 결과를 수술 소견과 비교하였다. 수술 후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 PET와 CT의 소견을 수술 및 임상경과와 비교하였고, PET의 검사 결과에 의해서 임상적으로 치료방침이 달라진 경우를 분석하였다. 대상: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내시경으로 위암진단 받았거나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에서 진단 및 병기 결정의 목적으로 F-18 FDG 전신PET를 시행하고 수술 혹은 추적 관찰이 된 21예를 선정하였다. 방법: 내시경으로 위암 진단 받은 환자 13예에서 F-18 FDG 전신PET의 임파절 양성과 복부CT의 임파절 양성인 것을 위절제술 후 병리소견으로 비교하였다. 병기가 IV기로 수술 시행되지 않은 2예에서는 임파절 양성을 임상경과로 비교하였다. 재발이 의심되거나 재발범위를 알기 위해 시행된 8예는 PET와 CT의 소견을 수술 후 병리소견 혹은 임상경과로 비교하였다. 결과: 국소 임파절 비교 13예; PET와 CT에서 예민도(SEN) 44.4%, 55.6% ($p>0.5$) 특이도(SPC) 75.0%, 75.0% ($p=0.57$) 양성예측률(PPV) 80.0%, 83.3% ($p=0.73$) 음성예측률(NPV) 37.5%, 42.9% ($p=0.62$)였다. 재발의 진단 8예; PET와 CT에서 SEN 100.0%, 40.0% ($p=0.08$) SPC 33.3%, 100.0% ($p=0.30$) PPV 71.4%, 100.0% ($p=0.58$) NPV 100.0%, 40.0% ($p=0.30$)였다. 임상적으로 재발이 의심되었던 8예 중 5예에서 재발로 진단되었고, PET는 7예에서 양성이었고 CT는 2예에서 양성이었다. PET는 5예에서 병소를 발견하였고, CT는 2예에서 발견하였고, PET만 재발을 발견하였던 3예에서 1예는 국소 재발로 수술이 시행되었고, 1예는 폐 및 복강전이로 수술을 취소하고 화학요법이 시행되었고, 1예는 폐 및 간 등에 전이가 확인되어 치료를 포기하였다. PET에서 위양성이었던 2예는 대장에 당대사향진병소가 관찰되었던 예로 1예에서는 대장검사, 다른 1예에서는 시험적 개복술로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고, 각각 8개월 및 6개월 경과관찰에서 병소 부위에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. 결론 및 고찰: 수술 전 국소 임파절 전이 유무 검사에는 F-18 FDG 전신PET가 복부CT보다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원격 전이를 PET로 발견한 경우가 1예 있었다. 재발의 진단 시 PET의 SEN가 CT와 차이가 있었으며 ($p=0.08$), 수술에 의한 해부학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사료된다. 위암에서 F-18 FDG 전신PET는 전신 전이의 발견, 치료 후 효과판정 및 재발의 진단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